

벤처CEO가 그려낸 그들의 이야기

벤처인들이 책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잘나가는 CEO들은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책을 직접 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경영뿐 아니라 삶, 가족,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출간하고 있는 벤처의 CEO들, 그들이 출간한 책을 통해 벤처CEO의 삶을 살짝 엿보자.

세계를 난타한 남자 ● 송승환 대표

문화CEO로 통하는 PMC 송승환 대표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공연 <난타>를 제작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수출 성공담과 문화 마케팅의 선구적인 길을 걸어왔던 그는 그 기록들을 《세계를 난타한 문화CEO 송승환》에 담았다. <난타>를 기획하고 에디션버러를 거쳐 브로드웨이에 수출하기까지의 이야기, 그때그때의 난관을 돌파하며 저자가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결과물 등 송대표가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문화 마케팅 노하우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

실패담을 고백한 ● 박은일 대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덕밸리의 솔루션웍스 박은일 대표는 자신의 벤처창업 실패담을 《나 하나 주식회사로 우뚝서기》에 담았다. 이 책에는 박대표가 SI업체를 꾸리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원인 등을 분석, 가상의 법인체인 '나'라는 회사에 투영시켜 창업부터 기업공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책이다. 박대표는 “뺨이픈 과거를 후배 창업자들이 겪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내게 됐다”고 말한다.

젊은 벤처CEO를 말하는 ● 이광석 대표

인터넷벤처의 대표주자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미로비전의 채희승, 피츠커뮤니케이션의 권은성 대표 등의 청년사업가들과 함께 《네 나이에 CEO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젊은 CEO들이 창업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를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젊은 벤처인들은 경영을 하면서 기업이윤 뒤에는 사회적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가운데 교만과 소탐대실을 버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며 도전 정신과 주인의식을 배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가족사랑을 노래한 ● 염진섭 대표

지난 2001년 딸의 건강문제로 야후코리아 대표직을 사퇴했던 염진섭 전대표가 시집을 통해 가슴절절한 사연을 내놓았다. 염 전대표는 시집 《나는 잠깐 긴 꿈을 꾸었다》를 통해 찢어지게 가난했던 유년시절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배고팠던 대학시절 그리고 힘겹고 외로웠던 자화상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틈틈이 써놓은 1백여 편의 시 가운데 48편을 추려 모은 이 시집에는 '일중독'에 빠진 가장 때문에 희생을 치러야 했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등 조금은 아쉬움 가득한 지난 삶에 대한 감회로 가득하다.

무소유의 기업정신 펼치는 ● 정문술 대표

벤처 1세대 정문술 대표는 1983년 직원 여섯 명과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미래산업'을 창업한 이래 벤처인의 스승이며, 아버지로 존경을 받아왔다. 정대표는 《정문술의 아름다운 경영》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열정과 위험을 사랑하는 벤처 기질로 험난한 기업환경을 헤쳐 나온 그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다. 정대표는 2001년 1월에 '착한 기업을 만들어달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경영권을 직원에게 물려주었고, 카이스트에 300억원의 사재를 기부했다. 이 책은 정대표의 이런 독특한 체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교수들과 경영지침서 집필한 ● 권영범 대표

ERP업체로 한우물을 파온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는 경영학관련 교수들과 함께 《CEO를 위한 신(新)경영학》을 출판했다. 권대표는 기업경영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경영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자주 책방에 들렀지만, 경영 전반에 걸쳐 쉽게 알려주는 한 권짜리 책이 없어 난감했던 기억 때문에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 e-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e-비즈니스 시대의 경영, 조직설계 및 IT와 경영이라는 테마로 구성된 이 책은 경영전략·마케팅, 인사/조직·생산/운영, 재무·회계·경영정보 등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를 사랑한 ● 여인갑 대표

컴퓨터서버업체인 시스코프 여인갑 대표가 오랜 시간 모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숫자를 주제로 한 책 《여인갑 박사의 숫자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빌게이츠와 666', '숫자놀이로 풀어보는 스트레스' 등 숫자 속에 담겨진 여러가지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여대표은 서울대 공과대 응용수학과 출신으로, 그의 폭넓은 경험이 숫자와 어우러져 책 곳곳에 녹아있다. 여대표는 현재 시스코프와 보이스뱅크의 대표직은 물론 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벤처인의 책임은 습관 만들기

책을 효과적으로 잘 읽는 10가지 방법

여름을 앞두고 벤처인들의 휴가에 책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호 테마를 벤처인들의 독서삼매경으로 잡고

책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이에 '책을 효과적으로 잘 읽는 법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르다.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
2. 주제에 관련된 탄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찾아 읽어라.
3.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은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다.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무리해서 읽지 말라.
4. 책을 끝까지 읽어라. 읽다가 그만둔 책이라도 일단 끝까지 넘겨보면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5.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섭렵하기 위해 속독법을 몸에 익혀라.
6. 메모하면서 책 한 권을 읽을 시간이면 관련서적 다섯 권을 읽을 수 있다.
7. 남의 의견이나 가이드북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8. 주석에 때때로 본문 이상의 정보가 실려 있기도 하다. 주석을 빠뜨리지 말고 읽어라.
9. 책을 읽을 때는 끊임없이 의심하라. 좋은 평가를 받는 책이라도 거짓이나 엉터리가 있을 수 있다. 의문이 생기면 원본 자료로 확인하라.
10. 젊은 시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책 읽을 시간만은 꼭 만들어라.